

제199호 · 발행일 : 2011. 10. 31(월)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깊어가는 가을 남대천 양양연어 물에 오르다



깊어가는 가을 남대천
양양연어 물에 오르다

오색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
남대천에는 물에 오르려는
연어의 행렬이 장관이다.

아장아장 귀여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자기보다 큰
연어를 잡고는 마냥 즐거워한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전영진

양양국제공항 동계올림픽 공식공항 지정 필요

양양국제공항의 비상을 위한 전략 토론회

우리군은 지난 7일 문화복지회관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교통 SOC확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이장호 박사의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철도 부문 소송대책과 대안' 과 강원발전연구원 동북아연구센터장 노승만 박사의 '환동해권의 중심, 양양의 결절점(Node)화 전략' 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공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양양국제공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공식공항 지정이 시급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주~강릉의 철도노선과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등 남북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양양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동해안의 항만을 이용한 크루즈 관광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차 내려오는 북극권의 항로 개척 등 신항만과 양양공항을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 적합한 현 남면 동산리 일원에 해양레저단지를 조성, 올림픽 공식공항으로서 양양국제공항의 연계 활성화를 극대화하는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특화전략도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이에 따라 ▲올림픽 시설간 연계를 위해 강릉 원주 복선전철의 양양국제공항까지 연장 ▲대형 쇼핑몰과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통한 항공 관광객 유치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신항만 건설 등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항만·철도·항공·도로 등 융복합적 기간시설 확충으로 양양군의 발전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자들은 양양국제공항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현재의 양양국제공항을 '양양올림픽국제공항' 으로 새로 네이밍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중소형 항공기 유치를 위한 양양국제공항 계류장 확충,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 구성

서울지방항공청 주관...국제정기노선 개설 총력

양양국제공항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들이 강구된다.

우리군은 11월 초 서울지방항공청이 주관하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 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는 공항 개항 이래 처음으로 정부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중심이 돼 국토해양부와 법무부를 비롯해 강원도.우리군.속초시.강릉시 등 지자체가 참여한다.

지방항공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주관함에 따라 유관기관들의 원활한 협조가 가능해지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모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는 발족과 함께 매월 1회 정례회를 갖고 체계적인 방안마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정기노선 개설에 총력을 기울

일 방침이다.

현재 에어택시로 울산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국제정기노선 신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사활을 걸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악권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교통인프라를 연계한 마케팅을 새롭게 진행하고 침체되다 활성화된 해외사례를 발굴, 양양국제공항에 접목시키는 근본적인 대안도 수립한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는 7개 유관기관이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공항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핵심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항공기 위기대응 종합훈련 실시

양양국제공항 대테러 예방 합동작전

2011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종합훈련이 지난 27일 오후 2시 양양국제공항 일원에서 입체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위기대응 훈련은 대만을 출발한 여객기가 미상의 테러범에 의해 납치, 양양국제공항에 착륙이 예상된 상황에서 육상과 해상에서 불시착에 대비한 합동작전이 펼쳐졌다.

납치된 여객기는 양양국제공항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 인질극을 벌이다 대테러 진압요원에

의해 진압된 뒤 화재 및 응급환자 조치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날 실시된 양양국제공항 위기대응 종합훈련에는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를 비롯해 15개 정부기관, 5개 의료기관 등에서 인원 191명과 여객기와 헬기를 포함, 총 62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의 정 소 식

제2회 추경 22억 증액

예비비 5억6천만원 감액...조기집행 재검토



우리군의회(의장 오세만)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006억원, 특별회계 168억원 등 2,174억원으로, 당초예산 2,152억원보다 22억9천만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12억7천만원과 지방세 수입 9억6천만원, 보조금 3억원, 재정보조금 1억9천만원이 증액됐고, 지방교부세 4억6천여만원이 감액돼 총 22억9천만원이 증액됐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8억7

천만원과 경상이전 7억원, 물건비 4억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11억4천만원과 예비비 등 5억5천여만원이 감액됐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17억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5억6천여만원을 감액한 11억4천여만원으로 편성했다.

군의회는 재정 조기집행이 정부의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역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조기집행은 지역경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이자수입의 감소로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

우리군의회가 의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등으로 활용되는 국외연수가 자칫 외유성 논란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했다.

군의회는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정책연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한편 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했다.

김현수 의원을 비롯해 6명의 의원들은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공동 발의하고 지난 24일 폐회된 제173회 우리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군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 이내의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

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또 심사기준을 마련해 단순 시찰이나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허용하지 않고 필수 인원으로 한정해 무분별한 국외연수나 여행은 자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심사위원회와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보고서는 의회 자료실에 보관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타당한 목적을 갖고 국외로 나가는 것조차 외유성으로 비쳐지던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규칙제정을 통해 의원들의 자질함양과 실질적인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 기대된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양양남대천 연어생태공원(갈대숲) 조성사업 추진

낙산대교 위 데크로드, 전망대, 갈대숲 등 조성

양양군 남대천 연어생태공원(갈대숲)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남대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돼 이달부터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3억 9,300만원을 들여 남대천 좌안부(송이공원 끝단부~낙산대교) 7만 6,447㎡의 면적에 남대천의 생태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폭2m, 길이 658m 데크로드와 전망대 8개소를 설치하고 2만 2,100㎡ 규모의 갈대, 물억새, 달뿌리 등의 생태식물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 남대천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 연어 이야기, 남대천 서식어종 및 식물 등에 대한 연구와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청정 생태환경을 관찰, 학습, 체험하는 다목적 휴양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문화재지표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천점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로 최근 고시된 남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이번 연어생태공원조성

사업계획이 반영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의 남대천 제방도로 경관가로 등과 낙산대교조명 시설 등과 조화를 이루어 남대천 하구 일원이 새로운 관광명소가 돼 낙산지역의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연어의 고향인 남대천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문화, 여가공간으로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환경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670-2160

“주민화합·결속 다져” 5개 면민체육대회 성료



풍성한 가을을 맞아 관내 5개 면의 주민체육대회가 10월 28일 일제히 열렸다.

올해는 특히 외부행사가 많은 10월의 특성을 감안,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막기 위해 매년 각 면별로 다른 일정을 잡아 열리던 주민체육대회를 모두 같은날에 개최함으로써 관내 전역에서 화합과 즐거움의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이날 주민체육대회는 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이 주축이 되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됐으며 주민들은 물론 면내의 직장 근무자, 외지로 나간 자녀들과 출양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리별 대항 체육대회와 문화공연, 민속놀이 등을 개최, 영농기간 중 피로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주민결속과 화합을 다졌다.

보건소 양질의 서비스 제공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식...각종 편의시설 갖춰



우리군보건소가 지난 18일 증축 및 리모델링 준공식을 갖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은 보건소 광장에서 정상철 군수와 오세만 의장, 김양수 도의원, 황응구 강원도 보건정책과장, 장금자 보건소장을 비롯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준공으로 기존 2층 건물이 3층으로 증축된데다 정신보건센터와 결핵관리실이 마련됐으며, 건강검진실에 체

력단련실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보건소 이용객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내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며, 1층에는 진료실, 구강보건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정신보건실이, 2층에는 건강검진실,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결핵관리실, 체력단련실이 갖춰졌다.

한편 군보건소는 이날 준공식에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체험관을 운영,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의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670-2550

보건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우리군보건소가 2011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10월26일 오후 1시 문화복지회관2층 소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서 심질환으

로 치료중인 환자 보호자와 구급차 운전자, 보건교사, 인명구조요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요령 등 기본 인명구조술 이론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70-2725

‘양양연어’ 특허청 지리적 표시 추진

연어산업화·브랜드화 기대...국도비 지원

우리군이 양양송이에 이어 남대천 연어를 테마로 하는 ‘양양연어’의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진하고 있어 브랜드 가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군은 미래전략 자원인 연어 및 연어가공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아 브랜드화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양양연어’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던 중, 지난 9월 특허청의 2012년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특허청 강릉지식재산센터 및 강원도와 합동으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게 됐다.

‘양양연어’가 내년도 특허청의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국·도비 지원은 물론 양양연

어의 브랜드 가치와 그동안 미진했던 연어산업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냄으로써 상표로 특허청에서 보호하는 제도로 영광굴비와 보성녹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에 2천5백만원을 들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외부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연구결과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연어특구 지정 및 연어생태공원 조성, 연어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연어가공산업 육성 등 연어관련 산업화를 적극 추진, 양양송이와 함께 지역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양연어’가 내년에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국비와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각종 연어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향후 결과에 따라 양양송이의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1호 등록처럼 해당부처의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해진다.

한편 우리군은 2006년에 양양송이를 산림청의 지리적 표시제 1호로 등록했으며, 올해는 지역특산물인 설악산 장뇌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 중이다. ▶문의 미래전략과 투자유치담당 670-2123

동호해변 개발 탄력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 고시

손양면 동호리 일원에 대한 낙산도립공원계획이 변경돼 동호해변 주변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은 낙산도립공원 구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계획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동호해변 주변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낙산도립공원계획을 지난 달 30일 변경 고시했다.

이번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은 주택 및 펜션 등이 밀집된 동호해

변과 접하고 있는 배후지역으로 16만 5,180㎡의 자연마을지구로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해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확충할 수 여건이 마련됐다.

동호해변 주변지역이 공원밀집마을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2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되고 용적률도 100%에서 150%로 확대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의 설치와 호텔, 콘도외의 숙박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해 관광기반시설의 투자유치가 활

발히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호해변은 울창한 송림과 깨끗하고 넓은 백사장으로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나 대부분이 자연공원법상 낙산도립공원구역 자연마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로 편입돼 주거용도 외에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어려워 인근의 낙산, 하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다.

군은 향후 낙산도립공원구역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보전가치가 없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용도지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70-2725

오산리 토제인면상 진품 전시

동아시아 최고 유물 관심...사실상 영구 전시

동아시아 최고(最古) 신석기 유적인 양양 오산리에서 출토된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상인 토제인면상(土製人面像)'이 30년만에 고향에 돌아와 전시되고 있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군은 그동안 토제인면상을 소장하던 서울대 박물관과 1년 대어 형식으로 전시한다는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일부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전시실에 전시한 뒤 일반에 공개했다.

토제인면상은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된 오산리유적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로 4.3cm, 세로 5.1cm 가량의 작고 둥근 점토판을 손가락으로 눌러 사람의 얼굴 모양을 표현한 대표적인 유물이다.

특히 오산리에 살던 당시 신석기인들이 생산과 풍요, 재액으로부터 보호를 기원하고 축원을 의미하는 씨족수호 신상(神像)으로서 예술적 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은 지난 8월 텃무너토기 인수에 이어 이번에 토제인면상 진품을 전시하게 돼 선사유적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리선사유적의 대표 유물인 토제인면상이 공개 전시되면서 유물을 보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



운데 학생들의 박물관 교육 효과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 2007년 발굴조사 때 출토된 오산리 유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다시 태어나는 오산리'라는 주제로 특별전 형태로 기획 전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50여점이 오는 12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전에도 초대받아 전시될 예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람객수가 300만명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한 우리나라 대표박물관으로 이번에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이 전시됨으로써 양양 오산리유적을 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문화시설사업소
선사유적담당 670-2548



사진전문가 / 전영진의 우리고장 돋보기



오색단풍 물든 현산공원

주민들의 가을쉼터 인기

깊어가는 가을 오색단풍으로 물든 현산공원이 가까운 곳에서 쉬는 역사적 현장이면서 매년 봄이면 벚꽃이 만발해 주민들의 단풍놀이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주민들의 가장 기

국군의날 38선 돌파 기념식

지난 1일 기사문리서 재현행사



38선 돌파 재현행사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오후 양양 현북면 기사문리 38선 휴게소 부근에서 류제승 8군단장, 정삼철 군수, 오세만 의장, 채용생 속초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백골부대 전우회 회원, 군장병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38선 돌파 재현행사를 펼쳐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원봉사 릴레이 돌입

229개 봉사단체 참여...11월6일까지

2011자원봉사 릴레이가 우리군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문화복지회관에서 13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속초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강원도 자원봉사 릴레이기를 인계받아 자원봉사활동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자원봉사 릴레이에는 양양자원봉사대 4.8기, 다움회, 양양수지침봉사회, 대한적십자사 양양봉사회, 대한적십자사해오름단위봉사회, 손양여성의용소방대, 아이코리아, 양지회, 여성자원봉사실, 양양라이온스클럽 네스회, 재래장터 지킴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참가자 등

13개 단체 229명이 참여해 11월6일까지 장애인가구재가봉사, 수지침봉사, 목욕봉사,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도내 각 시군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 릴레이는 자원봉사의 기본 정신을 되새겨 자발성과 무보수성 및 공익성을 바탕으로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로 확산되고 있다.

▶문의 자원봉사센터 670-2246



주민이 행복한 평생 학습도시 만든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78강

김봉곤 훈장의 고전이야기

26일 우리군에서는 훈장을 따라 글 읽는 현 대관 선비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몸을 좌우로 흔들어가며 훈장의 가르침을 모두가 함양했다.

78회를 맞은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이번 강연자는 김봉곤 청학동 예절학교 훈장이 초청됐다. 20년 동안 전통서당에서 공부하고, 창극단, 방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익히 잘 알려진 청학동 스타다. '김봉곤 훈장의 고전이야기'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고전 속 성인들의 말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노자가 말씀하시길 지지소이불태(知止所以不殆)라, 그칠 줄 아는 것은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이 머물 자리를 알아야 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임금이 머물 자리는 인(仁)이며 자식이 머물 자리는 효(孝)다. 삼라만상은 모두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머무를 곳을 알고 머무는 자리에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할 때 그 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산목자후야(山木自寇也)니라, 산에 나무가 스스로를 도적질한 것이니라.”

나무가 곧게 잘 자라 있으면 목수는 이를 보고 ‘저것 잘라다가 남대문 짓는데 쓰자’란 생각을 한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자초

한다는 뜻이다. 남 탓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망족(忘足)은 이지적야(履之適也)니라, 발을 잊는 것은 신발이 맞기 때문이니라.”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신발과 같이 맞는 역할만 한다면 모든 사람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고맙고 감사함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신발 덕에 내 발이 더러워질까 하는 걱정을 잊을 수 있다. 이에 고마운 생각을 가져보자.

“천하유상승지도(天下有常勝之道)하고 유상불승지도(有常不勝之道)니라, 천하에는 항상 이기는 도가 있고 항상 이기지 못하는 도가 있느니라.”

이는 항상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항상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 유능재강(有能任姜)이란 말이





더 늦기를 정취를 만끽하기 위한 주민들의 발길로 북적이고 있다. 오랜 세월 주민들과 함께 해온 현산공원은 양주성의 살아 숨쉬는 그 이리서 떨어지는 빗꽃을 미중하며 심신을 달래곤 한다. 가을이면 오색으로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온 현산공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군민들의 쉼터요 숨결이다.

있다. 승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부드러움'과 더불어 '바른 길, 정(正)'을 삼도록 노력해 보자.

“비무안거야(非無安居也)야 아무안심야(我無安心也)니라, 편안한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행운지수는 하위권이다. 옛 선비들은 마음공부를 첫 번째로 삼았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정화시키면 육체는 도구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법이다.

“군자불감어수(君子不鑑於水)하고 이감어인(而鑑於人)이니라, 이는 군자는 물을 거울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는 말이다.”

과거엔 물을 떠놓고 과장이 없을 때 자신을 비취보곤 했다. 우리 일생의 첫 번째 거울은 부모님이고 두 번째 거울은 선생님, 세 번째 거울은 아내나 남편이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대신 말을 해주는 거울이다.

“공자가 말하시길 백행지본(百行之本)이 인지위상(忍之爲上)이라, 백행 중 참을 인자가 으뜸이 된다.”

당시 70세까지 장수하셨던 퇴계 이황 선생

은 매일 기운을 평화롭게 하는 '화기환'을 드셨다고 한다. 화기환의 재료는 참을 인(忍)이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다. 인(忍)의 덕목,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욕지미래(欲知未來)인데 선찰이연(先察已然)이니라, 미래를 알고자 하느냐? 이미 그러한 것을 살피라는 뜻이다.”

우리는 늘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토정비결도 본다. 그러나 내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에서부터 현재 시점까지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된다.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내 발자국의 방향을 바꾸면 미래 또한 바꿀 수 있다

“일엽패목(一葉蔽目)이면 불견태산(不見泰山)이라,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리면 태산이 보이지 않는다.”

하찮은 존재가 내 눈을 가리니 내 앞의 엄청난 큰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내 눈을 가린 나뭇잎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것이 집착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다. 분노가 될 수도 있고, 탐심일 수도 있다. 이것을 치울 때 비로소 세상이 바로 보이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79강 안내
○ 일 시 : 2011. 11. 30 (수) 15:00
○ 장 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
○ 강 사 : 박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강연주제 :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예술이란?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18. 연날리기

날아라
올라라
바람타고
하늘까지
올라라
날아라

어서 어서
올라라.

겨울날, 추운 줄도 모릅니다.

정성들여 정교히 제작된 연을 들고 여럿이 언덕 아니면 산 등성이에 올라 연줄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바람타고 하늘로 오릅니다.

재주(?)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웃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되는데로「가오리 연」을 달리며 날려 봅니다. 거기에 꿈도 실었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푸르고 높음을 새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가 있음도 터득하게 됩니다.

이런 바람직한 시간의 3단계 흐름에서 단순한 기억이 아닌 애틋한 추억으로 오늘에 서 봅니다. 새롭습니다. 맑습니다. 밝습니다.

제15회 노인의 날 경로잔치

1천여명 참석 경로효친사상 고취



우리군은 지난 10월26일 오전 10시 실내체육관에서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회장 이진형) 주관으로 제15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발굴 포상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화합과 격려를 위한 경로위안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식전.식후 경축행사에서 사물놀이, 어린이 율동, 스포츠댄스, 기공제초, 에어로빅, 밸리댄스 등 다양한 행사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서면 유복수씨 등 3명이 강원도지사 표창을, 양양을 월리 노인회장 이준식씨 등 7명이 군수표창을 수상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670-2189

한수원사장기 38안보축구대회 성료

우리군 · 인제군 · 3군단 · 8군단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 (주)양양양수발전소가 주최하고 양양군생활체육협회와 양양문화원이 주관한 '제1회 한수원사장기 38안보축구대회'가 민관군이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축구대회는 우리군과 인제군, 8군단, 3군단 선수들이 각 단체를 대표해 축전, 축구를 통해 화합을 다지며 안보의 소중함을 알리는 경기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양양양수발전소에서 한수원 사장, 양양군수, 인제군수, 육군 3군단장 및 육군 8군단장이

한수원이 후원하는 축구대회를 창설하자는 조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양양중고총동문회

모교 발전기금 기탁

양양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전세남) 체육대회가 30일 양양중고 운동장에서 동문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동문회는 모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 모교 장학재단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확대

우리군 10명 추가고용 조기 완료

우리군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3/4분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은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및 물가관리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재원 1억2천9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부터 2억6천만원을 투입 45명을 고용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이번 추가재원확보로 10명을 추가 채용, 11월까지 투입해 각 단위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지붕 철거 및 개량에 필요한 전문목수 2명과 6~7명의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한 팀으로 구성해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효과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상반기 6가구에 대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완료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5천4백만원을 투입, 6개 읍면별 1가구를 선정해 지붕개량과 함께 전기배선, 도배 등 내부수리도 병행해 석면 노출 위험과 누수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에너지절약 기반 확충

청사 LED 교체,양양읍사무소 태양광발전 설치



우리군은 내년에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절약 기반 확충에 나선다.

군은 지식경제부의 2012년도 지역에너지절약을 위한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양양읍사무소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6천3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사 LED 조명등 교체사업은 1억9천3백만원을 들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 13개소의 청사형 광등 6,373개 중 조명 이용시간이 많은 2천여개를 우선 선정해 친

환경 에너지 절약형인 LED조명으로 교체한다.

또 7천만원을 투입해 양양읍사무소 옥상에 10kW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연간 1만2,775kWh의 전력을 생산, 연중형 광등 137개의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중식 및 퇴근시간 이후에도 전력이 계속 소비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대기전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천8백만원을 들여 대기전력 제로화사업도 시행한다.

대기전력 제로화사업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등 25개소에 일괄 전원제어장치를 설치해 대기전력 차단으로 연간 2천2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화재 예방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김규홍 670-2707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

우리군 359가구 16만9천원씩

우리군이 겨울철 추위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쿠폰을 전달했다.

군은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동절기 연탄 사용가구의 생활안정 및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10월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359가구에 연탄쿠폰을 지급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88가구, 차상위계층 59가구,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12

가구이다.

지원되는 연탄쿠폰은 가구당 16만9000원 상당으로 지원대상자가 연탄쿠폰의 가격만큼 연탄 판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연탄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군은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급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올 겨울에도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겨울나기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양양종합운동장 건립사업 탄력

내년 국비 10억 확보...2014년 완공 계획

우리군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는 지역으로 체육 인프라 확충 및 도시기반구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도비 4억6,700만원, 군비 18억6,700만원 등 총사업비 33억3,400만원을 투입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양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 9만1,462㎡의 부지에 국비 65억4,000만원, 도비 30억5,200만원, 군비 122억800만원 등 총사업비 218억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4,850㎡(지하1층, 지상 3층), 관람석 1,500석 규모로 내년에 착공해 2014년까지 3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군은 계획부지 내 사유지 6만 9,074㎡중 89.7%인 6만 2,024㎡를 매입하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을 마친 상태로 지난 8월 사업착수를 위한 실시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군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내년도 국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잔여 토지 매입 및 문묘이장, 실시시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



고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종합운동장은 도시개발 촉과의 연계성, 주거환경, 도심기반 확충 등에 개발목표를 두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규모와 친환경적인 시설구조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도 함께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관광진흥지원 조례 제정

체류지로 전환 관광활성화 도모

우리군이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 관광진흥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군은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을 지역 관광객으로 체류시키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자치단체간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경유지'에서 '체류지'로 전환을 유도, 우리군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양양군 관광진흥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우리군에서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 등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및 수학여행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관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항 이용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을 실시할 경우 지원범위를 내국인에 비해 확대해 양양국제공항 및 지역의 내수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학여행시 각급 학교에서 입찰조건으로 숙박시설을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숙박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소형 일반 숙박업체의 경영지원과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일반 숙박업체를 이용한 경우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 관광자원 홍보물 제공,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이성섭 670-2721

신도불이 판매자 인증제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신뢰 향상

우리군이 전통 5일장 활성화를 위해 신도불이 판매자 인증제를 실시한다.

군은 내년부터 전통시장 및 전통 5일장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1차 농특산물만을 판매하는 영농인과 판매자를 인증하는 '신도불이 판매자 인증제'를 도입해 고객 신뢰도 제고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통시장 아카데미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도 상반기에 전통 5일장에서 양양의 농특산물만 판매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도불이 판매자 인증제를 도입해 아카데미구역내로 이전토록 해 쾌적한 환경에서 판매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양 5일장 신도불이 판매자 인증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양양에서 생산된 1차 농특산물만을 판매토록 하고 농특산물 품질관리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회와 관련 행정기관 합동으로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판매자들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신도불이 판매자 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해 강제 퇴출 규정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 관광시장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한편 양양 5일장 판매자라는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동 개량한복 조끼 착용과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고객이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교환과 환불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제정 운영할 방침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김규홍 670-2707

동철감 명품사업 '우수' 선정

농촌진흥청 평가 3억원 지원 후속사업 탄력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철감 명품화사업이 2011년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평가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3억1백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1차년도 평가에서 동철감 명품화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며 조기 육성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비 3억1백만원과 군비, 자부담 등 총 6억1천5백만원을 투입해 감 말랭이, 아이스감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사업에 집중 투자, 동해안 최대 감 재배 및 감 가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10만주 이상의 감나무를 보급해 250ha의 재배면적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까지 국비 1억8천9백만원, 군비 8천1백만원 자부담 8천7백만원등 총 사업비 3억5천7백만원을 지원해 꺾감 건조시설 5개소, 저온저장고 5동, 감 자동선별라인 1개소, 꺾감 포장재 제작지원, 과원 기반시설지원 등 연간 100여톤 이상의 감 가공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군은 동철감 육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안정적인 생산 및 가공기반이 구축된 만큼 내년에 가공 및 유통 부문에 집중 투자해 작지만 강한농업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담당 670-2369

낙산사 주변 정비사업 마무리

황토포장 등 친환경 조성

우리군이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낙산사 주변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관광객들의 탐방 편의와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탐방로 개선과 재해예방, 조경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낙산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수관음상 진입로 정비, 배수로 정비 및 석축 쌓기, 외편 담장 정비 등 사찰시설 정비와 함께 낙산사 대형주차장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와 내대지 상태의 주변정비 사업을 통해 9,600㎡면적의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66㎡규모의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

아지고 있다.

군은 올해도 도비 등 총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의상기념관 주변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마사토로 교체한다. 또 탐방객 편의를 위해 낙산사 대형 주차장에서 유스호텔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107m의 진입도로를 신설하고 흥예문~일주문의 콘크리트 포장을 황토포장으로 교체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낙산사 주변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불복구와 함께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주변이 맑아지며 정비돼 천년고찰 낙산사와 그 주변의 관광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전기울타리 감전사고 '주의'

야생동물 퇴치용 250개 점검

우리군이 최근 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설치한 농작물 전기울타리의 감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점검에 나선다.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대거 설치하고 있으나, 안전장치 없이 임의로 설치돼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로 설악권에서도 지난 추석을 전후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울타리를 모르고 별초를 가던 사람들이 만져 감전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관내 88농가에 250개의 안전표지판을 배부해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목 등에 부착하고 전기울타리 설치농가 및 지역주민들에게 전기울타리의 위험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또 읍.면별로 전기울타리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전기울타리 현황 파악 및 전원차단기 작동여부 등 안전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및 철거하고 안전장치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점검과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울타리를 설치토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670-2183

서면 철광지에 상수도 공급

장승리 일원 맑은 물 급수

우리군이 철광지역인 서면 장승리 일원에 맑은 물 급수를 위한 상수도를 공급한다.

군은 철광지역 특성상 위해물질 노출에 대한 불안감과 수질불량 등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면 장승리 주민들의 안전한 먹는 물 제공을 위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억원을 들여 양양정수장에서 상평리간 2km의 배수관로를 매설한데 이어 올해

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상평리~장승리간 3.3km구간에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한다.

군은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절차,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배수관로 매설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배수관로 및 각 가정까지 연결하는 급수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준공되면 지하수 및 마을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던 서면 상평리, 장승리, 서선리 등 철광지 주변 200여세대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농촌 어르신들 건강검진 호응

농업기술센터 농촌건강장수마을 대상



우리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건강장수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 건강검진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노인과 예비노인들에게 건강, 학습, 사회활동, 환경, 경제 등 4개 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아산병원 순회진료팀과 연계해 양

양읍 포월리 등 3개 마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초에 현남면 입암리에서 60명을 검진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양양읍 포월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르신 40여명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11월9일에는 강현면 강선리에서 100여명의 마을 어르신의 건강을 검진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올해 현남면 입암리, 강현면 강선리, 양양읍 포월리 등 3곳을 육성하고 있으며 공동 소득사업, 풍물교육, 노래교실, 마을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담당 670-2338

저소득층 여성 일자리 창출

우리군 취업교육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우리군이 저소득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취업교육지원사업이 대상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자립 자활의지가 높으나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전문직종 진출기반을 만들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올해 2천만원을 투입해 현재까지 모두 16명이 요양보호사, 다문화가정 운전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운데 연말까지 10여명의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교육가능과목은 중장비,간호조무사,조리,미용,피부미용,

컴퓨터 등 취업과 창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이며 학원비, 교육재료비, 원서접수비 등 교육훈련비와 교통비 등 교육훈련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기시험합격시 운전면허 1종,2종 취득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2007년도부터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65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미용업, 양양자활센터 등에 취업하면서 자립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70

올해 모범음식점 35곳 지정

우리군이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다.군은 지난 9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현지 점검과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접객서비스,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 등 심의를 거쳐 재지정 30개소, 신규 지정업소 5개소 등 총35곳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원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주며 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 및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지정후 2년동안 출입검사 면제, 매월 5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10장 지급 및 상수도요금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이번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좋은식단 실천 및 윈스 푸드(ONCE Food) 캠페인 선도업소로 양성해 음식자원 낭비 방지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소 위생담당 670-2312



수화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럼 수화를 배우러 어디로 가야할까요?
저희 양양군농아인협회에 오시면 됩니다.

by 강풀

- 모집기간 : 2011년 10월 17일 ~ 10월 30일
- 교육기간 : 2011년 11월
 - 한국수어 I, II(3개월) 과정 - 30,000원
(수화를 처음 접하는 분들의 위한 입문 과정)
 - 한국수어 III, IV(3개월) 과정 - 45,000원
(수화의 다양한 언어적 표현방법을 배우는 중급 과정)
- 교육장소 : 양양군농아인협회 사무실
- 교육대상 : 수화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 문의처 : ☎033) 673-9874



< 수화통역사 양성반 >

국가공인 수화통역사에 도전해 보세요!!

나이제한(만19세이상), 성별제한, 없이 청각장애인(농아인)에게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하실 분들 !!
수화통역사에 도전해 보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양양군농아인협회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11년도 저소득여성 일자리창출지원 대상자 모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여성,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 등 자격증 취득 및 취업·창업이 가능한 자립기반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술 습득을 연계하고자 저소득여성일자리창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사업시기 : 2011. 1월 ~ 12월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여성결혼이민자 등
- 사업비 : 2천만원
- 교육인원 : 20명 이내(예산범위내)
-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신청
- 지원내용
 - 훈련비 : 학원비 및 교육재료등(위탁학원 지급)
 - 훈련수당 : 실교통비, 중식비, 생계비
 - 기타수험도서비스, 원서접수비
- ※ 기타문의사항 :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 ☎033-670-2779

남대천 연어 포획 금지

- 매년 가을이면 산란을 위하여 어김없이 우리남대천을 찾아오는 손님(연어)을 우리군 군민모두가 보호합시다
 - 채포금지기간
 - 해수면 : 10. 01. ~ 11. 30.(60일간)
 - 내수면 : 10. 11. ~ 11. 30.(50일간)
 - 단속구역 : 우리군(동해안)모든 해수면 및 내수면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용역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우리군은 지난 25일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용역심의 활동에 들어갔다.

부위원장인 김원래 기획감사실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용역심의위원회는 위촉직 5명과 당연직 5명 등 총 10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3권을 심의한 가운데 자체검토를 통해 학술연구용역의 유사·중복 및 낭비를 방지하고 시행된 용역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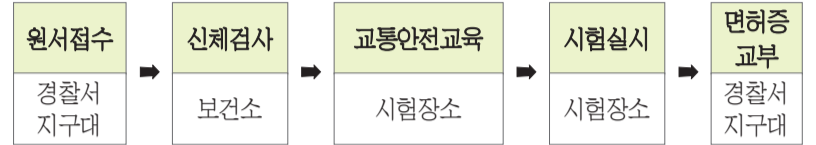
▶문의 기획감사실 670-2206

『원동기 면허시험의 날』

속초경찰서에서는 양양군 출장 원동기 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경찰서, 양양지구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면허종류 : 2종원동기, 다륜형(사발이)
- 시험일시 : 2011. 11. 24. 09:00
- 시험장소 : 양양읍사무소
- 접수기간 : 2011. 11. 01 ~ 11. 21(21일간)
- 접수처 : 경찰서, 양양지구대

● 시험절차



- 준비물 : 사진 3매, 신분증, 응시원서(양양보건소비치)
- 수수료 : 20,000원
 - 신체검사(5,000원), 학과시험(4,000원), 기능시험(5,000원), 면허증 발급(6,000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교통민원실(☎ : 033-633-3333) 또는 지구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 초 경 찰 서 장



국가범죄피해지원센터

“범죄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국 범죄피해지원센터 안내 대표전화 : 1577-1295

⇒ 속초·고성·양양지역에서 1577-1295를 누르시면 각 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로 연결됩니다.

건강한 숲,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삶!

당신의 작은 관심이 큰 산불을 방지합니다!

산불은 우리들의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는 입산을 하지 맙시다
-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맙시다
- 운전중 창밖으로 담뱃불을 던지지 맙시다

【산불신고센터】

- 우리군 산불대책본부 ☎ 670-2424, 2727
- 속초소방서 상황실 ☎ 119



국비지원 신입생 모집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강원인력개발원 2011년도 대졸자 취업전문교육과정 안내	
모집분야	지원 자격
의료기기 설계·제작	- 만 29세 이하 청년층(군필은 만 31세 까지) · 만 29세 이상자 40%이내 선발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군필자에 한하여 고졸자 선발가능
원서 마감	현재 접수 중 (2011년 12월 5일 까지)
입학 특전	- 월 20만원 수당지급 수당 지급 -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전액 국비 지원 - 국가기술자격증취득 및 취업 알선

- 접수 : 강원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 문의전화 033)430-9720~3 교학처 <http://kw.korchamhrd.net>



관광고객 만족을 위한

기초질서(음주소란, 호객행위)위반사범 특별단속

▶ 단속기간 : 2011. 10. 20 - 12. 31

▶ 단속대상 :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호객행위)
법칙금 50,000원 / 즉결심판 회부

* 기초질서 준수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속 초 경 찰 서 장